2026. 5.26

FI Weekly

채권 김지나
6148 / jnkim0526@eugenefn.com

5 월 금통위 Preview: 인상을 위한 포석

❝ 5월 28일 금통위,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조가 바뀌는 것을 시사하는 분기점인 동시에 신현송 총재의 첫 데뷔 무대로 중요한 회의. 이번 회의에서는 **기준금리를 2.50%로 동결하겠으나 1~2명 정도의 인상 소수의견 나올 가능성** 있음. **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에서도 인상 의견이 확연히 늘어날 것**으로 예상되면서 차후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**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7월, 늦어도 8월 예상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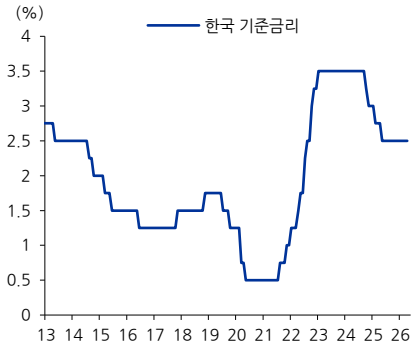
❝ 한은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**성장률과 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인상의 근거를 강화**시켜줄 전망. **1분기 GDP 서프라이즈와 최근 상승한 물가 실적치 반영, 국제유가 가정치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전망치는 2% 중반 이상 상향도** 가능할 것.

❝ 이미 **시중금리는 2~3회 이상의 인상이 반영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금통위 결과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**.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**연내 인상이 몇 번이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확인할 수 없어** 그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 인상 반영 횟수와 레벨에 관계없이 우려감 연장되면서 금리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을 것으로 판단.

❝ 금통위 인상 리스크가 매우 강하지만, **이를 압도하는 것은 최근 급부상 중인 미국-이란 간 협상 진행 결과**. 만약 현실화될 경우 금통위에서 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주더라도, **인상 횟수가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지면서 금리 하락 압력 생길 수 있음**. 실제로 이미 상승한 유가와 이에 대한 물가지표 반영, 반도체 경기로 인한 국내 성장률 호조 등으로 연내 1회 이상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나, **협상 여부에 따라 금리 변동성 높아질 것에 유의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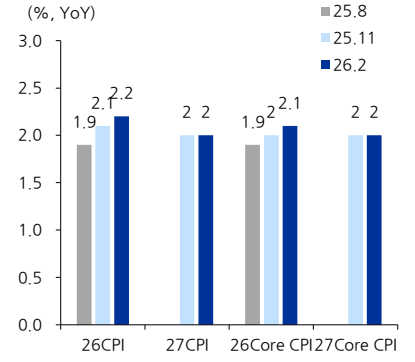
❝ 글로벌리 채권 투매 및 변동성 지속. 종전을 기대하고 고금리 캐리로 버티는 것은 리스크가 큰 선택. 종전 이후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종전 보다는 휴전 연장 가능성이 높고,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하거나 유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상승한 물가지표를 확인할 때 금리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. 특히나 **한국처럼 주식 호조로 인해 채권 투자심리가 더 부진하거나 인상 전환 혹은 환율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레벨에 따른 저가매수 보다는 리스크 관리 필요.**

한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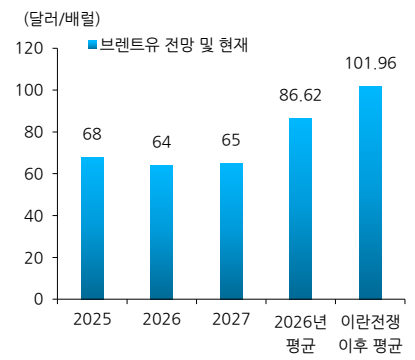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물가 전망치 대폭 상향 전망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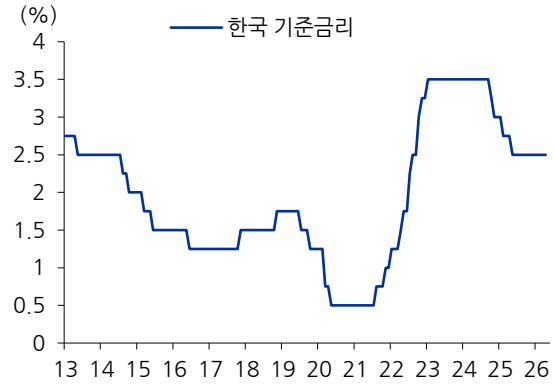
상승한 국제유가 반영만 해도 가정치 대폭 수정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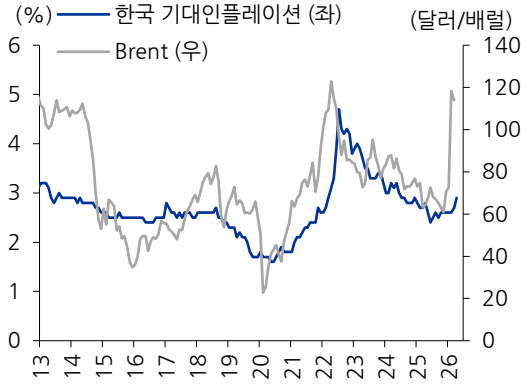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한국 기준금리 2.50% 동결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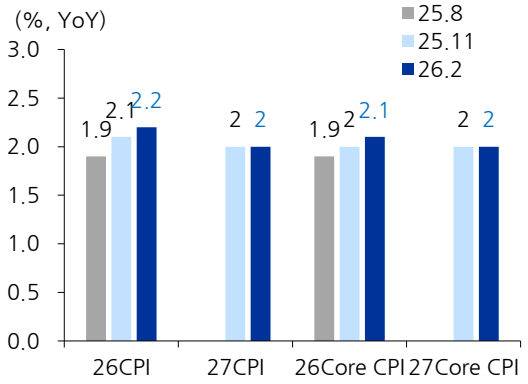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상 기조 전환 예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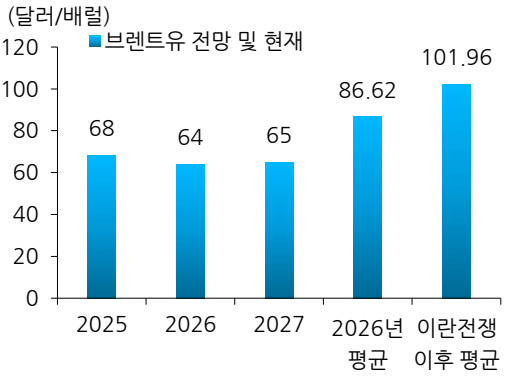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한국은행, 물가 전망치 대폭 상향 가능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이미 상승한 국제유가 반영만 해도 가정 대폭 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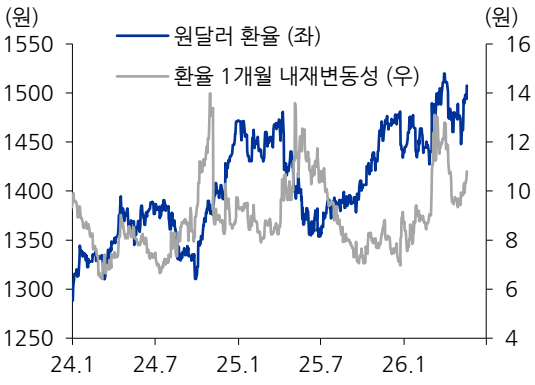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인상 반영은 했지만 연내 인상 횟수 확신은 어려워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유진투자증권

고금리 캐리로 버티기엔 금융시장 불안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